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9.1.)

-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

- 우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 이에, 지난 8월 22일, 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 40명과
함께 산재사고 예방을 논의한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논의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 ①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③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여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등급편람 배점(총 1,000점): (산재사고 감소 성과 등) 100→150점

④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⑤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금년 내 점검·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⑥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다음으로, '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 재생e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전력공급 여력 강화, '31년 1단계 준공, '36년 전체 준공 목표, '29년까지 약 1조원 소요, '30년 이후 11조원 소요 전망
- 한편,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번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5년 202.2%에서 '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Delta 12.1\%p$)될 전망입니다.
- 부채규모는 '29년 847.8조원으로 '25년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지만, 동 기간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투자여력 제한 우려가 있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맺음말 】

-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저성과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예산과 재해대응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 (산재예방)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사고 방지 등 1.3→1.5조원
 - (재해대응) 재해위험지역정비 확대 등 3.7→5.5조원
- 공공기관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줄일 것은 확실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새정부 국정운용 핵심과제에 제대로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해야 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공공기관이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혜안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임)